# 아프리카의 젠더 평화구축의 기반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페미니스트적 국경을 사고하다

**하이디 허드슨**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스테이트대 교수)

PLZ Forum for Ecozoic Era 2020

국경지역의 평화 건설에는 젠더(gender)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경과 접경지역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사고는 젠더의 관점을 통한 안보의 대안적 비전을 제공하며, 더 포괄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평화 의제를 재조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적 개념과 학문적 연구는 국경을 다방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사고에 유용하다. 오늘 발제에서는 국경의 유형적(물리적), 무형적(상징적) 특성 모두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성별과 평화구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적 도구, 즉 페미니스트 프런티어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것들이다. 발제의 목표는 젠더 감수성에 따른 평화구축을 위한 매뉴얼이나 툴킷을 제공하는 게 아니다. 대신 평화구축 활동가, 실천가, 정책 입안자(국가 및 지역 공동체 모두)와 학자들이 국경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사고를 통해 평화를 바라보고 더 넓은 관점을 채택하도록 돕는 일종의 개념적 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페미니스트 프런티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적 요소로 구성된다:

- 메타지리학 (젠더화된 평화구축 공간)
- 위장(가면)과 인간다움(인류/정체성)
- 일상적 문제 (평화를 구축하는 기반 시설 및 일상의 보안)

## 메타지리학(Metageographies)

'메타지리학(Metageography)'이라는 용어는 정신적으로 식민지화된 특정 공간에서

종종 지배적인 평화, 안보 및 정치경제 담론, 정책 및 관행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념적 정신 공간 구조를 말한다. 젠더와 평화구축 담론은 '지리(geography)가 없이는 절대 안 되지만 지리적으로 결백하지도 않다'. '메타지리학'이라는 용어는 또한 서로 다른 것이고, 타자이며(the Other) 그래서 열등하게 구분되는 인간사회의 공간을 가리킨다.

학계나 정책 결정집단에서 아프리카는 종종 그 경험적 풍부함(사례 연구 잠재력)과 이론이 시험 될 수 있는 현장으로 강조된다. 그 과정에서 세계(대중)와 반대되는 가정(사적, 문화적)의 이른바 여성적 자질이 아프리카와 연계되어 아프리카의 여성화, 나아가 세계정치에서 소외된 위치를 강화한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서구인들의 시각으로 식민지화되고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과 세계 식민지의 일부인 자유주의적인 평화구축 관행으로 보는 것, 이 둘을 연결시키는 게 아래 섹션의 주요 목표다. 심지어 비판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작업조차도 아프리카 페미니스트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관점을 무시한 채 식민지 개념을 영속시키고는 한다. 차별이 있는 곳에서 차이로 드러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 위장(Masks)과 인간다움(Menschen): 대행기관의 문제

이 섹션에서 나는 사람/인류 그리고 그들의 주체성(subjectivities)과 대행기관(agency)을 살펴본다. 관련된 지역 및 국제 활동가들이 속해 있는 서로 다른 기관을 전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평화 건설의 맥락에서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고정관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위장 해제(unmasking)'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인 의미의 인간다움(보통의 인간을 뜻함)은 세계 평화 건설자들, 특히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젠더 권력 역학 관계의 실체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

대행기관(agency)은 개념적으로 보면 서구 인본주의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항상 사회적(관계적),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오늘 발제의 '핵심' 메시지는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볼 수(see)' 있다면, 평화구축

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화구축자들의 '비전'을 넓히면 현재의 평화구축 관행을 보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원 배분 과정을 개선하여 자금이 적절한 목표 그룹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개입을 더 정당화할 수 있다.

## 일상 속 대상(objects)과 물질(matter)

두 번째가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것이라면, 세 번째는 사물의 주관(비인간적 주체성)으로 이동한다. 인간 주체를 탈중심화하는 게 인류가 버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주체성이 지배의 위치를 잃는 대신 인간중심주의 이후 미래 안에서 관계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중요성이 관련된다.

-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물질 (예: 평화 및 민간 보안 인프라 규칙)
- 일상적인 안보와 평화 건설의 정치경제

평화 기반시설로 위장하는 기반시설의 집합은 사실상 매우 해로운 형태의 통제와 정치적 질서다. 예를 들어, 공항, 광산 및 항구와 같은 중요한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민간 보안회사는 광업 이익과 NGO/구호 활동가를 보호하기 위해 통행금지 및 보안 검사에 의해 규제되는 높은 벽과 철조망 뒤에 있는 건물에 안락하게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기반시설은 안정화나 국가 체계를 명분으로 국경이나 통제 지점에서 일반 사람들의 삶을 조절하며 이 역할을 통해 더 강력해진다. 이러한 중요한 기반 시설 보호의 민영화는 더 많은 불평등을 야기한다.

이는 일상에 대한 관심으로 상쇄되거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일상에서 평화구축'이라는 용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일상의 안전을 신체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경험의 일부로 감지할 수 없다면 아직 충분히 멀리 간 건 아니다.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을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젠더화된 자본주의와 군국주의 과정 사이의 복잡한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둘 모두를 통해 그들의 삶을 협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평화유지 경제와 분쟁 후 경제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물질적 측면이 분쟁 후 우리의 일상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가사 업무, 성 노동, 사설 경호 업무와 같은 평화유지와 관련해 지역민들이 하는 일들이 그 좋은 예이다.

## 페미니스트 프론티어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이론적 도구를 어떻게 비선형(non-linear)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간략히 살펴본다. 분쟁 이후 상황 분석을 시작으로 상황의 식민성을 인식한 다음, 인간과 물질의 선택 의지를 역사적 부정과 억압의 배경으로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의 목표는 관계의 논리를 보다 전체적인 방식으로 재고하는 것이다.

대행기관은 더 이상 국제 사회가 지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호 작용과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다양하지만 종종 감추어진 인간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활동가의 차별화가 그만큼 중요해진다. 새롭고 눈에 보이지 않던 행위성과 정체성(지역주민, 평화구축자, 정책 입안자와 외부인)이 자연환경 및 인공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젠더감수성 높은 지역 시민사회의 자산유동화(securitisation), 비공식적이며 복합적인 민주주의와 통치방식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와 세계정치의 전통적인 젠더 이론과 관행을 전복시킬 새로운 어휘가 필요하다. 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수용하는 페미니스트 국경 개념이 새로운 어휘의 시작을 제공할 거라고 주장한다.